

제7장 현대 일본과 세계

1. 일본의 민주화와 국제 사회로의 복귀

1 점령과 일본의 민주화

점령과 전후[戰後] 정책

패전 후의 일본의 영토는 포츠담선언에 근거하여, 홋카이도[北海道], 혼슈[本州], 시코쿠[四國], 규슈[九州]와 그 주변의 섬들로 제한되었습니다. 또 일본은 미국을 주력으로 하는 연합국군에 의해 점령당하게 되었습니다. (주 1). 오키나와와 오가사와라 제도[小笠原諸島] 등은 본토와 따로 떨어져서, 미국이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정치·경제는 미국의 맥아더를 최고사령관으로 하는 GHQ(연합국군최고사령관총사령부)의 지령하에 진행되었습니다.

GHQ의 방침은 전전[戰前]의 군국주의를 개혁해 민주주의를 뿌리 내리게 하는 것으로, **전후 개혁**[戰後改革]이라고 일컫는 많은 개혁을 실행하였습니다. 군대는 해산되고, 전쟁의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는 군인과 정치가가 국제군사재판에 회부되어 (도쿄재판), 전시 중에 중요한 지위에 있던 사람들은 공직에서 추방당하였습니다. 또한 천황이 신의 자손임을 부정하는 선언을 하였습니다.

동시에 민주화라 일컬어지는 새로운 제도도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치 면에서는 정당의 활동과 언론의 자유가 인정되어, 선거권도 20세 이상의 모든 남녀에게 주어졌습니다. 경제 면에서는 전전의 체제를 경제적으로 뒷받침하였다는 이유로 재벌이 해체되었습니다. 농촌에서는 농촌 개혁이 이루어져, 그 때까지의 지주·소작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었습니다. 소작인에게 농지가 주어져, 많은 자작농이 생겨났습니다.

주 1. 한편 만주에 있던 일본군 약 60만 명이 소련에 의해 시베리아에서 수년간 강제 노동을 당하여, 6만 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망하였습니다.

일본국 헌법

민주화를 지향한 개혁의 중심은 헌법 개정이었습니다. 정부는 GHQ가 제시한 안을 토대로 새로운 개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안은 의회의 심의를 거쳐, 1946(쇼와 21)년 11월 3일 **일본국 헌법**으로서 공포되어, 다음해 5월 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국민 주권, 기본적인 인권 존중, 평화주의를 3원리로 하는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짐에 따라 많은 법률과 제도도 고쳐졌습니다. 남녀평등을 기본으로 하는 민법, 주민의 직접선거로 도·도·부·현[都道府縣]의 지사를 뽑도록 한 지방자치법, 민주주의 교육을

기본으로 하고, 소·중학교를 의무교육으로 한 **교육기본법** 등이 만들어졌습니다.

사진: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 1946년 4월, 20세 이상의 남녀에 의해 처음으로 중의원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466명의 국회의원이 탄생했으며, 그 중 39명이 여성이었습니다.

2 두 개의 세계와 아시아

냉전은 왜 시작된 것일까요. 또 현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림: **동서의 대립** 서측 진영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동측 진영은 바르샤바조약기구를 결성해서 대립하였습니다.

사진: **국제연합 본부** 미국 뉴욕에 있고 본회의 등이 열립니다. 부지 안에는 가맹 각국의 깃발이 늘어서 있습니다.

「왜 나토(NATO)가 만들어진 것일까.」

「국제연맹과의 차이는 무엇일까.」

국제연합과 냉전

1945(쇼와 20)년, 연합국은 두 번의 세계대전이 일어난 것을 반성하고 전후의 평화를 유지시키는 기관으로서 **국제연합(국련[國連])**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국[超大國]」으로서 큰 힘을 갖게 된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게 되어, 정치와 경제 구조가 크게 다른 서로의 진영에 세계의 나라들을 끌어 들이기 위한 경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련이 동유럽의 나라들을 지배하고 미국은 서유럽의 나라들을 지원하여, 유럽은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동측 진영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측진영으로 분단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독일은 1949년에 동서로 분단을 당했습니다. 더욱이 1949년에 소련의 원자폭탄 보유가 밝혀 지자, 양국은 서로가 군사적 우위에 서기 위해 핵병기를 포함한 병기 증강 경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동서 양 진영의 **심각한** 대립은, 「차가운 전쟁(냉전)」이라 불리어 그 영향은 세계 각지에 이르렀습니다.

사진: **베를린에 만들어 지는 장벽** 1961년, 동독은 동서 베를린의 경계에 장벽을 쌓아, 시민이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식민지의 해방과 아시아

제2차 세계대전 후, 오랫동안 구미 여러 나라의 식민지였던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가 잇달아 독립해 갔습니다.

중국에서는 일본의 패전 후, 국민정부와 마오쩌둥[毛澤東]이 이끄는 공산당과의 사이에서 내전이 일어나 공산당이 승리해,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이 성립되었습니다. 한편

국민정부는 대만으로 도망갔습니다.

조선은 식민지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만,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북을 소련에게, 남을 미국에게 점령당해, 1948년에는 북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조선)이, 남에 대한민국(한국)이 성립되었습니다. 1950년, 북조선이 한국을 침공해서, **조선전쟁**(역주: 한국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중심의 국제연합군이 한국을, 중국의 인민의용군이 북조선을 각각 지원해, 전쟁은 1953년에 휴전 협정이 맺어질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1954년 이후, 남북으로 갈라져 있던 베트남에서는 미국의 개입으로 인해 전쟁이 격해 (**베트남전쟁**), 1976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남북의 국가가 통일되었습니다.

사진: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을 선언하는 마오쩌둥** (1893-1976년)

사진: **인도 독립의 연설을 하는 초대 수상 네루** (1899-1964년)

지도: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독립국** (1960년대까지)

사진: **조선전쟁** 피난하는 주민과 전선으로 향하는 미국 병사.

사진: **베트남전쟁** 주민을 취조하는 미국 병사.

3 국제 사회로 복귀하는 일본

점령 정책의 전환

일본의 민주화 가운데, 노동자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동자의 단결권이나 쟁의권을 인정하는 노동조합법 등이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차별을 없애는 부락해방운동도 재건되었습니다. 게다가 홋카이도아이누협회가 다시 조직되었습니다. 한편,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여 노동 쟁의가 활발해지자, GHQ는 경제 부흥을 방해한다고 하여 경제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냉전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으로, GHQ는 일본을 서측 진영에 넣기 위하여 점령 정책을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1950년 조선전쟁(역주: 한국전쟁)이 시작되자, 일본 본토나 오키나와[沖縄]의 미군 기지가 사용되어, 대량의 군수 물자 조달도 일본에서 실시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 경제는 호경기를 맞이하여(특수[特需] 경기), 경제 부흥이 빨라졌습니다.

재일 미군이 조선전쟁에 출동하자, GHQ의 지령으로 경찰예비대가 만들어졌고, 그것이 점차 강화되어 1954(쇼와 29)년에는 **자위대**가 되었습니다.

평화조약과 국제연합 가맹

미군은 일본을 서측 진영의 강력한 일원으로 만들기 위하여 일본과의 강화[講和]를 서둘렀습니다. 강화회의는 1951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려, 일본은 미국 등 48개국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 1) 동시에 미국과 **일미안전보장조약**을 맺어 일본의 안전과 동아시아의 평화를 지킨다는 이유로 미군의 주류[駐留] 등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안보조약은 자위대 문제와 함께 큰 정치 문제가 되었습니다.

1955년경부터 냉전의 긴장이 조금씩 완화되는 가운데, 평화조약을 맺지 않았던 소련과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 1956년에 일소공동선언이 나왔습니다. 같은 해, 소련의 지지도 얻어 일본은 국제연합에 가맹하고, 국제 사회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과 중국의 관계는 나라와 나라의 정식적인 관계가 없는 채로 그 상태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주 1. 강화조약에서는 일본이 거액의 배상금 지출을 감당할 수 없었기에 대부분의 나라가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또 일본이 침략한 아시아의 여러 나라 사이에서도 경제 협력으로 배상을 대신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2. 국제 사회와 일본

(지역의 역사 10) 정[町]의 변화로부터 역사를 살펴 보다

1 고도 경제 성장 중의 일본

경제 성장 속에서 국민의 생활은 어떻게 변화한 것일까.

사진: **오키나와[沖繩]의 재일 미군 기지** 오키나와에는 지금도 많은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어째서 오키나와에는 미군 기지가 많은 것일까.」

사진: **오키나와 복귀를 위한 노력** 1965년, 당시의 총리대신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는 「오키나와가 복귀하지 않는 한, 전후는 끝나지 않는다」고 연설하였습니다.

일·미 관계와 오키나와의 복귀

1955(쇼와[昭和] 30)년, 그때까지 분열되어 있던 정당들이 합동하여 자유민주당(자민당)과 일본사회당(사회당)이 성립하였고, 이후에는 자민당이 정권을 계속 잡았습니다.

1960년 일본은 새로운 일미안전보장조약을 맺어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했습니다. 이때, 조약의 내용과 국회에서의 승인 표결을 둘러 싸고 대규모의 반정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이 시정권[施政權]을 쥐고 있던 오키나와는 전도[全島]의 약 15%에 해당하는 토지가 미군 기지로 되어, 오키나와 주민들의 권리는 제한받고 있었습니다. 1972년, 오키나와 사람들을 비롯한 일본 국민의 강한 염원에 의해 일본으로의 복귀가 어렵게 실현되었습니다. (주 1) 그러나 기지의 대부분은 남겨졌습니다.

주 1. 오키나와 반환과 관련해서, 세계에서 원자폭탄 피해를 입은 유일한 나라인 일본은 핵병기를 「갖지 않고, 만들지 않고, 들여 오지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나라의 방침으로 정하고(1971년), 이를 반환된 오키나와에도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오가사와라제도도 1968년에 복귀되었습니다.

사진: 국회의사당 앞에 모인 안보조약에 반대하는 사람들 (1960년)

고도경제성장의 빛과 그늘

전후[戰後] 일본의 경제는 1950년대 중순까지 거의 전쟁 전의 경제 수준으로 부흥되었습니다. 그후 20년 가까이 걸쳐 높은 경제 성장률이 이어져(고도경제성장), 일본의 국민 총생산(GNP)은 약 5배로 증가하고 일본은 세계 유수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생활도 수입이 늘어나고 냉장고 등의 가정전화제품[家庭電化製品]과 자동차 등의 보급에 의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신문·라디오 외에도 텔레비전이 보급되어 사람들의 생활과 의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경제성장은 인구의 도시 집중에 의한 과밀[過密]과 농촌의 과소화[過疎化] 등 새로운 사회 문제도 낳았습니다. 또한 공해문제도 발생해 하천과 바다의 수질오탁[水質汚濁], 대기오염 등에 의해 생활 환경이 악화되어 많은 주민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주 2)

1973년 제4차 중동전쟁을 계기로 일어난 석유가격 상승으로 세계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석유위기)

해외와의 관계에서는 외국 나라들로부터 해외의 물건을 사야 한다는 요구를 받게 되고, 특히 미국과는 수 차례에 걸쳐 대립이 발생해 일미무역마찰[日米貿易摩擦]이라 불렸습니다.

주 2. 미나마타[水俣](구마모토현[熊本縣]), 아가노천

유역[阿賀野川流域](니가타현[新潟縣]), 진쓰천 유역[神通川流域](도야마현[富山縣]),
옷카이치[四日市](미에현[三重縣]) 등 각지에서 공해문제가 심각화되었습니다.

도표: 일본의 국민총생산과 경제성장률의 변화(「경제 요람」 2004년판)

사진: 매연을 뿜는 옷카이치[四日市] 콤피나트(1965년)

아시아 여러 나라와의 관계

일본은 1965년 한국과 **일한기본조약**을 맺어, 한국 정부를 조선반도에 있는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로 승인하였습니다.

관계가 끊겨 있던 중국과는 1972년에 일중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국교를 정상화하였습니다. 또한 1978년에는 **일중평화우호조약**을 맺어, 그 후 중국의 경제 발전이 진행됨에 따라 관계를 강화해 가고,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일중평화우호조약> (부분)

제1조 양 계약국[締約國]은 주권 및 영토 보전의 상호 존중, 상호 불가침, 내정에 대한 상호 불간섭, 평등 및 호혜, 그리고 평화 공존의 여러 원칙의 기초 위에서 양국 간의 항구적인 평화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으로 한다.

2 현대 일본과 세계

자기와 가족의 역사를 세계와 일본의 움직임과 관련지을 수 있습니까.

사진: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기뻐하는 독일 시민** 1989년 11월, 냉전의

상징이었던 「베를린의 장벽」이 개방되어 많은 동서 베를린의 시민들이 모여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베를린의 장벽은 언제 만들어진 것일까. 몇 년 정도 있었을까.」

2대 정당화[政黨化]로의 움직임

자민당에 의한 장기 정권은 여기에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큰 힘을 갖게 되어 정치의 정체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1993(헤이세이[平成] 5)년에 「비자민 연립」 내각이 성립되어 자민당에 의한 일당 지배 체제는 무너졌습니다. 이후에도 정당의 이합집산은 계속되었는데, 2003년 선거에서 자민당과 민주당이라는 2대 정당화로의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사진: **2대 정당** 거대한 두 개의 정당이 상호 경합하여 정권을 유지하거나 교대시키는 정당 정치로, 영국이 그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사진은 영국 국회의 모습입니다.

버블 경제와 헤이세이[平成] 불황

석유위기 이후 일본 경제는 자원과 에너지 등을 그다지 사용하지 않고 생산 효율을 높이는 경제로 변화해 가 안정 성장의 시대로 이행하였습니다. 1980년대 후반이 되자 기업이 가진 잉여 자금이 주식과 토지에 투자되어 주식과 토지의 가격이 큰폭으로 상승하는 「버블 경제」(주 1)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서자 버블은 붕괴되어 경제가 정체되고, 주가와 물가가 내려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자도 증가한다고 하는 불황(헤이세이[平成]불황)이 되었습니다.

주 1. 경제가 실패 이상으로 「거품」처럼 부풀어 오른 상태.

테탕트와 냉전 후의 세계

엄격한 동서 대립의 긴장은 1970년대에 완화되기 시작해, 긴장 완화(테탕트)의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일본은 미국 이외의 서측 선진 여러 나라와의 관계도 강화하여, 1975년 이후 서밋(주요국 수뇌 회의)에 가담하고, 그 후로도 많은 국제 회의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1989년부터 1991년에 걸쳐, 동측 진영의 붕괴라고 하는 큰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동구 여러 나라의 민주화, 동서 독일의 통일, 소련의 해체로 인해 냉전이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냉전 후에도 옛 유고슬라비아 분쟁 등, 민족·종교·문화의 차이와 국가 간의 이해 대립 등 때문에 세계 각지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2001년에 미국에서 일어난 동시 다발 테러는 전세계에 충격을 주었으며, 2003년에는 미국 등이 이라크를 위협한

나라라고 하여 공격하였습니다.

아시아 여러 나라와의 관계에서는 1998년에 한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였고, 그 후 우호 관계가 강화되어 있습니다. 한편, 북조선과는 국교가 없는 상태였지만, 2002년에 총리대신인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가 평양을 방문해, 국교 정상화 등의 교섭을 촉진하는 것에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납치 문제 등도 있어서, 그 후의 교섭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나라들이나 중국 등과는 두 나라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ASEAN+3 (주 2)이라고 하는 다국간의 관계도 진전하고 있습니다.

주 2. 동남아시아 10개국에 일본·한국·중국을 더한 회합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사진: **납치 문제** 최초의 일조 수뇌 회담에서, 북조선이 일본인을 불법으로 납치한 사건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피해자 중에 5명과 가족은 귀국하였지만, 미해결 문제가 많아 국교 정상화의 움직임은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3 앞으로의 일본과 세계

민주화의 과제

전후 일본은 세계의 움직임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발전을 이루고, 일본국 헌법을 기초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일본이 지구 사회 속에서 큰 역할을 다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차별을 없애고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 있습니다.

부락 차별의 철폐는 나라와 지방 공공 단체의 책무이자 국민적인 과제입니다. 재일 한국·조선인과 아이누 사람들, 외국인 노동자 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것도 일본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과제입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정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여성, 고령자 및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자립으로 이어지는 민주화, 어린이의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화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축구의 월드컵 개최식 광경** (2002년 5월 31일, 서울)

「어쨌서 일한 공동으로 개최된 것일까.」

사진: **월드컵의 일본 대표의 시합** (2002년 6월 4일, 사이타마현[埼玉縣])

「일본과 한국은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만들면 좋을까.」

세계의 일체화와 일본의 역할

현재는 세계의 일체화가 점차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경이 없는 경제 활동이 활발해져, 국제

간의 기업 합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E메일, 위성 방송 등을 이용해 어디에 살고 있더라도 세계 각지와 바로 연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제 분야에서는 선진공업국과 발전도상국의 경제적 격차(남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원조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현재 세계 유수의 원조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많은 문제가 있어서, 다른 나라들과 협조·협력을 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 분쟁과 테러는 평화를 앗아가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연합의 활동이 중요합니다. 국제연합은 평화유지활동(PKO)을 하고 있고, 일본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또 핵 폐절[核廢絶]이라는 인류 공통의 바람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지구 전체의 환경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에 대해서는 전세계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세계의 일체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본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21세기의 큰 과제가 되었습니다. 일본 국민으로서, 동시에 국제 사회에서 살아가는 인간(지구 시민)으로서, 더 좋은 사회 만들기를 생각해 나갑시다.

사진: 전후 보상을 요구하며 재판을 일으킨 사람 전쟁 중에 끌려와, 강요당한 노동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몇 건의 재판이 일본국과 일본 기업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사진은 기업과 화해하고 기자 회견을 하는 한국 남성.

「일본은 앞으로 어떤 나라를 지향하면 좋을까.」